

모니카
 기적이야...
 제이콥
 것 봐. 내가 다 관찮을 거라고 했잖아...

모니카, 그의 말을 곰곰 되새긴다.

147

INT. 한국 식료품점 - 낮

147

앤과 데이빗이 판매 중인 족발을 본다

앤
 [이거 좀 봐!]

데이빗이 뒤 쪽을 쳐다본다.

제이콥, 주인(40대)와 대화 중이다. 그들은 웃고 있는데 대화는 들리지 않는다.

주인, 농작물 상자를 보고 냄새를 맡는다.

Start Sc. 1

148

INT. 가게 뒤쪽 방

148

농장 소개 책자를 훑어보는 주인. 트랙터에 탄 데이빗과 앤의 사진도 있다.

주인
 아주 그럴듯한 아이디어네. 요즘 오클라호마 시티 근처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거든요.

모니카 바라본다.

제이콥
 여기서 파는 농작물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오죠?
 그러니까 오는 길에 상태가 안좋아 썩서 맛도 없다구요.
 우린 5시간 거리에 있어요.

주인
 좋습니다.

제이콥
 어느 요일이 좋으시죠? 아내가 일하긴 하는데 전 언제든
 올 수 있어요.

End Sc. 1

149

INT. 한국 음식점 - 밤

149

한국 음식을 먹고 있는 가족. 마음이 흡족한 제이콥.